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16년 4월 9일(토)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문창기 사무처장, 010-8803-1832)

제 목 / 대전권 철도(KTX, 도시철도 2호선)정책 질의 결과(총 4장)

<대전권 철도(KTX, 도시철도 2호선) 정책 질의 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20대 총선에 출마한 대전지역 후보자들에게 지역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횡수 증편과 적정 운행횟수, 서대전-논산 구간의 직선화에 대해 질의했다. 또 2014년 12월 정책 결정한 노면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에 대한 동의여부, 트램 추진을 위한 각종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 이후 대전시와 예산확보 등을 위한 협조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질의서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유선으로 최소 2회 이상 협조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정구국(이상 동구), 이영규, 박병석, 박홍규(이상 서구갑), 진동규(이상 유성구갑), 이상민, 김학일, 이경재(이상 유성구을), 정용기, 손종표(이상 대덕구) 후보는 질의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전체 29명의 출마자 중 10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지 않은 반면, 중구와 서구를 출마자 전원은 질의서를 회신했다.

둘째,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운행횟수 증편과 관련한 질의결과이다. 응답한 후보자 중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히며 KTX의 운행횟수 증편보다 ITX 새마을의 운행횟수 증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응답한 후보자들은 모두 필요성에 동의했다. 서대전-논산 구간의 호남선 선로 직선화와 관련하여 주무니, 강영삼 후보는 반대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찬성입장을 밝혔다. KTX의 서대전역 운행횟수 증편과 관련하여 20회 이상은 선병렬, 이동규, 조승래 후보가, 30회 이상은 강래구, 이은권, 송행수, 송미림, 이재선, 박범계, 박영순 후보가, 40회 이상은 김창수 후보가, 유배근, 고무열 후보는 50회 이상의 증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세부 내용은 '첨부 1 호남선 KTX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참조>

셋째, 도시철도 2호선 추진과 관련한 질의결과이다. 트램추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파적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한 이재선, 김신호 후

보의 경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응답한 후보자인 강래구, 송행수,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후보는 모두 찬성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의 응답한 후보자 중 선병렬, 이동규, 김창수 후보는 찬성입장을, 유배근, 고무열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이상 정의당), 주무늬(이상 민중연합당) 후보는 찬성입장을 밝혔고, 이은권 후보의 경우 방식을 떠나 조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트램 관련 각종 법률의 제·개정시 협력 의지**에 대해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찬성했고, 이재선 후보는 반대를, 이은권 후보는 방식이 결정되면 법안발의시 대표 또는 공동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후보 중 선병렬, 이동규, 김창수 후보는 찬성했고, 유배근, 고무열 후보는 반대했다. 김윤기, 강영삼, 이성우(이상 정의당), 주무늬(이상 민중연합당)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다. 아울러 **대전시와 협력관계 및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여부**에 대해 응답한 후보 중 이은권 후보만 ‘시민의 이익 전제’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동의하였다.<세부 내용은 ‘첨부 2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참조>

이번 정책질의 결과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운행횟수 증편과 서대전-논산구간의 선로 직선화사업은 지역의 문제임에도 중구와 서구일에 출마한 후보들만 전원 응답했고, 나머지 지역의 새누리당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무응답하여 선거가 끝난 후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는데 또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응답한 새누리당 후보자들은 여전히 정파적 입장을 갖고 반대하고 있어 선거가 끝난 후 또 다시 지역사회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는 정책선거를 지향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대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인 호남선 KTX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질의했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진행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질의에 무응답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후보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질의결과를 회신하여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2016년 4월 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유병구 이문희 장수찬

<첨부 1> 호남선 KTX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선거구	후보명	KTX 서대전역 운행횟수 증편	호남선 직선화	적정 운행횟수	비고
동구	이장우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강래구	찬성	찬성	이전의 50%	
	선병렬	찬성	찬성	25회	
	정구국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중구	이은권	찬성	찬성	30회	
	송행수	찬성	찬성	36회	
	유배근	찬성	무응답	54회	
	송미림	찬성	찬성	32회	
서구갑	이영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박병석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박홍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무늬	찬성	반대	심의 후 결정	전문가, 시민들과 심의 결정
서구을	이재선	찬성	찬성	30회	
	박범계	찬성	찬성	35회	
	이동규	찬성	찬성	20회	점차적 증편 필요
	김윤기	반대	찬성	무응답	ITX 새마을 증편이 바람직
유성갑	진동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조승래	찬성	찬성	최소 25회	
	고무열	찬성	찬성	54회 이상	
	강영삼	반대	반대	무응답	ITX 새마을 증편이 바람직
유성을	김신호	찬성	찬성	무응답	
	이상민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김학일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이성우	반대	찬성	무응답	ITX 새마을 증편이 바람직함
	이경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덕구	정용기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박영순	찬성	찬성	36회	
	김창수	찬성	찬성	40회	
	손종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첨부 2>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정책질의서 답변결과

선거구	후보명	트램추진에 대한 입장	각종 법률의 재개정 시 협력의지	대전시와 협력 관계유지 및 예산확보 노력	비고
동구	이장우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강래구	찬성	찬성	찬성	
	선병렬	찬성	찬성	찬성	
	정구국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중구	이은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방식을 떠나 조속추진, 방식이 결정되면 법 안발의에 대표 또는 공동발의, 시민의 이익 전제
	송행수	찬성	찬성	찬성	
	유배근	반대	반대	찬성	지하철 지속 추진 고려
	송미림	찬성	찬성	찬성	
서구갑	이영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박병석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박홍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무늬	찬성	찬성	찬성	
서구을	이재선	반대	반대	찬성	
	박범계	찬성	찬성	찬성	
	이동규	찬성	찬성	찬성	
	김윤기	찬성	찬성	찬성	트램보다 BRT를 선호. 고가보다 트램이 적합
유성갑	진동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조승래	찬성	찬성	찬성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의 공약을 존중
	고무열	반대	반대	찬성	지하철1호선과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재검토
	강영삼	찬성	찬성	찬성	트램보다 BRT를 선호. 고가보다 트램이 적합
유성을	김신호	반대	찬성	찬성	
	이상민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김학일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이성우	찬성	찬성	찬성	트램보다 BRT를 선호. 고가보다 트램이 적합
	이경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덕구	정용기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박영순	찬성	찬성	찬성	스마트트램 대덕구 확대 희망
	김창수	찬성	찬성	찬성	
	손종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